



‘2025 다민족연합기도대회’를 위한 중보기도팀 연합기도회가 10월 9일 오전 10시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렸다. ©다민족연합기도대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 다시 무릎 꿇어야 할 때”

**2025 다민족연합기도대회
오는 11월 2일 주일 오후 4시
은혜한인교회서 개최**

오는 11월 2일 오후 4시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릴, 다민족연합기도대회를 앞두고 지난 10월 9일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 2층 기도센터에서 중보기도팀 및 은혜한인교회 봉사자 약 250명이 함께 모여 미국과 한국의 회개와 부흥, 다민족과의 연합을 위해 기도했다.

기도회의 1부 예배 및 기자 설명회가 송종호 목사(은혜한인교회)

의 사회로 진행됐다. 강문수 목사(OC목사회 회장)의 개회 기도후, 공동대회장 신승훈 목사(주님의영광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미국”(왕상 12:1-13)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미국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나라였다.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 바다를 건너와 세운 나라이다. 배가 침몰해 목숨을 잃을 수 있음에도, 목숨을 걸고 이 나라에 왔다. 그들은 이 땅에 와서 교회를 먼저 세웠다. 움막에서 살면서, 교회를 먼저 잘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마지막으로 집을 지었다. 그러나 이제는 인권과 다양성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죄라 하신 것을 ‘괜찮다’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는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할 수 없다는 미국 수정헌법 1조,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며, 약자와 여성을 보호하는 등 성경적 가치에 기초한 사회 제도들, 자선과 구호활동 등 기독교 윤리의 실천 및 전 세계 선교사 파송 등을 미국의 특성으로 열거했다.

주디 한 기자 →2면에서

WEBRIDGE

We Bridge 사역 감사예배

미주 기독일보는 4년전 첫 모임으로 시작된 제 1회 위 브릿지 사역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감사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길 원합니다. 지난 4년간 귀한 동역과 기도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며 일하셨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눈물과 헌신으로 이어온 은혜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이제 2기 위 브릿지 교회 사역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눈물로 버텨온 사역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나눔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리에 정중히 초대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2025년 11월 11일(화)

오전 10시-오후 1시

장소: **충현선교교회**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문의: 기독일보 213-434-1170

등록: <https://forms.gle/QgCGpck7ctDd5pJX9>

美 잭 힉스 목사 “손현보 목사와 한국교회 위해 기도”

캘리포니아 치노힐스 갈보리교회 잭 힉스(Jack Hibbs) 목사와 교인들이 한국의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와 교회들을 위해 기도했다.

최근 이 교회 예배 영상에는 한국교회가 직면한 종교 자유 침해 상황을 놓고 함께 중보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서 잭 힉스 목사는 “손현보 목사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며 “한국의 형제자매들이 조롱과 모욕, 실직, 심지어 체포의 두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말

했다. 그는 “공산주의가 한국 사회 안에 스며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힉스 목사는 “우리 중 많은 이들의 아버지가 한국전쟁 세대에 속해 있었다. 그러므로 한국의 상황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이제 우리가 일어나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 “우리는 안락한 신앙에 익숙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 곳곳에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내놓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



잭 힉스 목사. ©치노힐스 갈보리교회

의 기도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이 상황을 알고 있으며,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이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다. 한국에서 부당하게 감금된 우리 형제들과 협박과 폭력으로 침묵당한 목회자들이 속히 풀려나게 해 주십시오”고 기도했다.

또한 “비무장지대의 철책이 주님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북한 땅에도, 중국에도 주님의 나라를 세워 주소서. 모든 정부가 하나

님의 땅 위에서 있습니다”라고 중보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 미국 사회도 혼란 속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완전히 사회주의로 기울었고, 일부 공화당원들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전 세계의 자유도 함께 흔들릴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교회를 깨워 주소서. 주의 이름이 영광 받게 하소서”라며 기도를 마쳤다.

강혜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확
소액~고객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Day 24hours (213)400-6363
\$ 미국 ↔ 한국 ₩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병크법칙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라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www.marhlaw.com

태양광, 솔라!!
☑ 상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ITC: 30% 이상
☑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총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2025년 대박
BTS SOLAR DESIGN 213.500.8000

baeksong.kr
2025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A church where miracles are real
LA백송교회 Lily Pine International Church
찬양과 말씀의 향연 Spirituality Festival
Praise
기름부으심이 넘치는
이순희찬양콘서트 Victoria Lee Praise Concert
10/25/2025 (SAT) 3:00 PM
LA백송교회 담임 **김성식 목사** Pastor . Daniel Kim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 Tel. 562-606-2345 , 213-249-4790
20th 기적, 변화, 치유의현장
성령컨퍼런스 20th Holy Spirit Revival Conference
10/26/2025 (SUN) - 11/5 (WED) 7:30 PM
백송교회 담임 **이순희 목사** Pastor .Victoria Lee

‘사랑의 점심식사’ 10월에도 따뜻한 나눔 이어가

남가주 기독교 교회협의회(회장 샘신 목사)가 협력하는 대표적인 시니어 섬김 프로그램 ‘사랑의 점심식사’가 지난 9월 11일(목)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중앙루터교회(S. Gramercy Pl.)에서 열렸다.

2010년 가을에 처음 시작된 이 사역은 올해로 15년째를 맞았으며, 매달 둘째 주 목요일마다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이번에도 약 200여 명의 시니어들이 참석해 풍성한 점심과 선물을 나누며 따뜻한 교제를 나눴다.

행사는 김영규 목사와 자원봉사자들이 주관하고, 남가주 교협이 협력했다. 특별히 이번 모임에는 LA 경찰과 LA 카운티 경찰이



지난 9일 중앙루터교회에서 남가주교협이 협찬해 열린 ‘쌀 나누기 행사’

함께 참여해 “Addressing Hate Crimes and Incidents(증오범죄 및 사건 대처)”를 주제로 세미나

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한인 커뮤니티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을 배우며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김영규 목사는 “사랑의 점심식사는 단순히 식사를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시니어들이 존중받고 공동체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라며 “15년째 이어온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흘러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10월 9일(목)에도 교협이 협찬하는 ‘쌀 나누기 행사’가 LA 한인타운 중앙루터교회에서, 10일과 11일에는 샘커뮤니티교회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됐다.

이윤준 기자

→1면 기사 <다민족연합기도대회>에 이어서

그러나 솔로몬이 그가 많은 복을 받은 후 변질된 것 처럼, 미국 역시 초기의 기독교적 정신을 잃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인정하고, 자유라는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며, 점차 인본주의화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무를 꿀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나라, 기뻐하셨던 교회, 기뻐하셨던 성도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어서 강순영 목사(준비위원장)가 이 대회의 역사를 설명했다. 그는 캘리포니아는 세계 부흥운동의 진원지로, 아주사 부흥 당시 ‘100년 후 LA에 다시 강력한 부흥이 임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다며 지난 10여 년간 한인 교회들이 부흥 운동을 이어 왔고, 한인들에게 두신 하나님의 소망과 부흥의 사명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세계 선교를 이끌어 온 나라입니다. 이제 다시 신앙의 부흥을 통해 존경받는 나라로 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제목입니다. 엘에이의 교회들이 부흥의 진원지가 되어 세계로 불길이 번져가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오는 11월 2일 오후 4시에 있을 2025년 다민족연합기도대회는 백인, 히스패닉, 유대인, 아프리카계, 중국인, 인도네시아인, 일본인, 베트남계 등 다양한 민족들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부 순서로 기도회가 강태광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무궁화 합창단(지휘 지경 교수)의 특별 찬양 후 신용환 목사(공동대회장)가 첫번째 순서, 회개를 위한 도전을 인도하고, 변재령 목사(GMI)가 회개 기도를 이끌었다.

김은목 목사(남가주 교협)가 두번째 순서, 미국을 향한 도전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정영숙 전도사(감사한인교회)가 ▶대통령 행정부가 하나님을 구하도록, 김미영 전도사(주님의 영광교회)가 ▶미국의 신앙 부흥과 성경으로의 회복, 현민정 목사(은혜한인교회)가 ▶관세 정책과 불체자 추방으로 인한 미국의 어려움들, 유수연 교육위원이 ▶캘리포니아의 부흥과 변화를 위해 기도했다.

김은목 목사는 형식이 아닌, 진정한 기도를 드릴 것을 촉구했다.

“기도는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것, 기도가 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기도이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불씨가 될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부흥과 변화를 위해 기도한 유수연 교육위원은 캘리포니아가 오늘 미국과 전세계의 영적 전쟁의 전초기지가 되었다며, 세속주의, 무신론의 유혹 속에 뒤덮혀 있는 캘리포니아 공교육으로부터 다음 세대를 건져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은 죽었다고 외치는 공립 교육과 대학의 무신론적 영향 아래 많은 젊은이들이 사탄의 속임수에 빠졌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찰리 커크와 같은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캘리포니아에서 터닝포인트 운동을 일으키셨다.”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물러설 수 없다. 흥해 앞에선 모세처럼 ‘내 백성을 보내라’ 외치며 다음 세대를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야 한다.”

강태광 목사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의 문화와 철학에 압도당하는 대신, 선교사의 눈으로 우상

숭배의 죄를 보고, 그들을 향한 거룩한 분노를 가졌다며, 선교사적인 시각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교육 도시, 최고의 문화도시, 최고의 철학 도시 아테네의 모습에 압도당하는 대신 우상을 보았다, 우리도 이 시대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수많은 우상이 보여야 할 줄 믿는다. 바울은 선교사의 눈,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땅을 바라보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 가득한 우상 때문에 분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세번째는 한국을 위한 기도도전이었다. 공동대회장 민경엽 목사(남침반 교회)가 도전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어서, 최국현 목사(OC교협)이 ▶한미갈등 해결과 한미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

민경엽 목사, “지도자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민경엽 목사는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를 언급하며, “우리가 정부의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약 그 지도자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C.S 루이스의 ‘모든 권세들에게 냉철하게 조건적으로 복종하라’를 인용하며, 이것을 잘못 적용한 경우로, 신사참배를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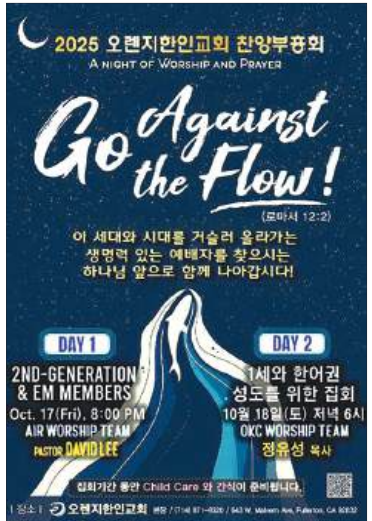
“히틀러가 이 말씀을 이용해 정치를 했다. 나치즘에 항거한 사람은 본회파 같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2차 대전이 지난 다음에 독일 교회 전체가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그러면서 지금까지 회개한다.”

그는 크비슬링 정권이 파시즘으로 노르웨이를 점령하려 했을 때, 루터파 1300명 목사들이 전부 다 사표를 내며 저항한 결과, 그 정권이 무너졌으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기도하고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다민족기도대회를 위해 김기동 목사(공동준비위원장 역임)가 도전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철민 장로(CMF), 하워드 리 장로(엘바인사랑의교회), 김영수 장로(다민족기도대회), 홍유규 목사(청교도신앙회복운동)가 기도로 함께했다.

기도회는 강태광 목사(다민족기도대회 사무총장)의 감사와 공지에 이어 이도한 목사(충현선교교회)의 식사기도로 마무리되었다.

문의: 강순영 목사 310-995-3936
강태광 목사 323-578-7933



오렌지한인교회 ‘Go Against The Flow’ 찬양부흥회 개최

플러튼에 위치한 오렌지한인교회(담임 정영성 목사)가 오는 10월 17일(금)과 18일(토)일 양일간 ‘Go Against The Flow, 이 세대를 본 받지 말라’를 주제로 찬양 부흥

회를 개최한다.

17일은 영어권 성도들을 위한 집회로 오후 8시부터 Air Worship 팀의 찬양인도와 David Lee 목사의 말씀으로 예배가 진행된다.

18일은 한어권 성도들을 위한 집회로 오후 6시부터 프뉴마 워십의 인도자인 정영성 목사가 오렌지 한인교회 찬양팀과 함께 찬양과 말씀을 인도한다.

두 번의 집회 모두 Child care가 준비된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오렌지한인교회 홈페이지 www.okcrc.org를 참고하거나 714-871-8320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임목사 위임 예배



최원일 담임목사

초·청·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인랜드 교회는

최원일 목사님을 제6대 담임목사로 세우는 은혜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인랜드 교회와 함께 귀한 사명을 맡으실 목사님의 걸음을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일시 : 2025년 10월 26일(주일) 오후 4시
장소 : 인랜드 교회 본당 T.(909)622-2324
1101 N Glen Ave, Pomona, CA 91768

연극 ‘사랑해 엄마’, 남가주 어머니들 울리다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 남겨
어머니의 희생적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이 오버랩
조셉 리 목사 “이 시대 어머니들을 위한 작품”

문화선교단체 러빙워십(대표 조셉 리 목사)이 주최 및 주관해 열린 연극 ‘사랑해 엄마’가 엘에이 무대에 올라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성황리에 개최됐다. 12일 오후 7시, 13일 오후 2시와 7시에 다우니극장에서 객석을 가득 채운 가운데 선보인 이번 작품에는 개그우먼이자 배우인 조혜련 씨가 주연으로 출연해, 가슴 따뜻한 모성의 사랑을 진솔하게 표현했다.

이 연극은 1980년대 부산 자갈치 시장을 배경으로 남편 없이 홀로 생선 장사를 하며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의 삶을 담았다. 가난하지만 강인한 어머니는 매일 새벽 시장으로 나가 생선을 팔며 아들의 학비와 생계를 책임진다. 아들 철동은 그런 어머니의 희생을 알지 못한 채 사춘기의 반항과 철없음을 드러내지만, 세월이 흐르며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이야기는 철동의 성장과 함께 가족 간의 갈등과 화해를 그렸다. 철동이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나와 자신의 삶을 찾는 동안, 어머니는 병을 얻어 점점 기운을 잃는다. 결국 암 진단을 받은 어머니는 끝내 세상을 떠나고, 철동은 깊은 회한과 함께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다. 조혜련 씨는 어머니 역할을 맡아 유머와 눈물을 넘나드는 섬세한 연기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평소 밝은 이미지로 알려진 그는 이번 무대에서 한없이 따뜻하면서도 헌신적인 어머니의 내면을 진정성 있게 표현했다. 그는 원래 불신자였지만 약 8년 전

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해 지금은 성경 바람잡이로 성경 읽기를 권하며 간증 집회 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관객들은 “너무 감동적인 연극이었다. 앞으로 남가주 지역에 이런 공연이 자주 열리길 기대한다”고 뜨거운 호응을 보였다. 연극 ‘사랑해 엄마’는 단순히 모자의 이야기를 넘어, 시대를 초월한 가족애의 가치를 전한다.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작은 일상의 대사 하나하나가 관객들의 기억 속 어머니의 모습과 겹치며, 잊고 있던 사랑의 감정이 되살아나 하나님의 사랑이 오버랩되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무대 배경인 집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천국에서 다시 보자’, ‘교회에 가야한다’는 대사를 배우들이 언급하는 등 복음을 전하는 요소가 극중 곳곳에 묻어난다. 관계자는 “이 작품은 세대와 성별을 초월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엄마 이야기’다”며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전했다. 연극 공연 후 러빙워십 대표 조셉 리牧사는 “‘사랑해 엄마’는 이 시대 자녀를 위해 살아온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며 “이 공연 관람을 위해 달라스, 시애틀, 샌디에고 등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셨다고 들었다. 지치고 힘든 이민 생활에 활력이 되었기를 바라고, 앞으로 계속 문화사역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싶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토마스 맥 기자**



연극 ‘사랑해 엄마’가 엘에이 무대에 올라 많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토렌스조은교회 가명훈 담임목사 취임예배

토렌스조은교회는 오는 10월 26일(주일) 오후 4시, 제3대 담임목사로 가명훈 목사의 취임예배를 드린다고 밝혔다.

교회는 지난 8월 31일 주일, 전교인 임시사무총회를 열어 청빙투표를 진행했으며, 96.8%의 찬성으로 가명훈 목사를 제3대 담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했다.

가명훈 목사는 미주성결교회 소속 시카고 북부 링컨샤이어 한인교회에서 담임으로 사역했으며, 지난 9월 28일 주일부터 토렌스조은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2025 GBC 공개헌금의 날, 목표액 넘어 40만6,737.96 달러 모금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이하 GBC)이 방송 사역 후원을 위한 ‘2025 GBC 공개헌금의 날, 아름다운 동행’을 지난 10월 3일(금)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하며, 목표액을 넘어 총 40만6,737.96달러(약정액 포함)를 모금하는 은혜로운 결실을 맺었다.

올해 공개헌금의 날은 오전부터 내린 비에도 불구하고 많은 후원자들이 본사와 12곳의 부스를 찾아 참여했으며, 전화와 온라인을 통

한 후원도 끊이지 않았다. 애너하임 본사에는 새벽부터 찾아온 첫 헌금자,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 참여한 자녀들, 고령에도 직접 방문한 성도 등 각양각색의 헌신이 이어졌다. 어려운 시기 더 큰 헌금을 드린 후원자, 방송을 듣고 감동해 처음 참여한 후원자, 타문화권 후원자들의 동참은 현장을 더욱 뜻 깊게 했다.

행사 당일에는 ‘아름다운 가게’ 할인 이벤트, 부스별 현장 프로그램, 동역업체의 먹거리 제공, 무료



헤어컷 행사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마련돼 축제 같은 분위기를 더

직접 참여해 GBC의 사역이 이민자 공동체에 끼친 영향과 사랑을 함께 나눴다.

이영선 사장은 “34년간 상업광고 없이 오직 후원으로 방송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방송을 지키고자 한 청취자와 후원자들의 힘 덕분”이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큰 사랑과 함께해 준 분들의 헌신이 이번 결과를 가능하게 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토마스 맥 기자

Halloween Day를 Holy Win Day로!

호소문 | Appeal Statement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는 할로윈데이(Halloween Day)가 오는 10월 31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공포, 귀신, 악령, 죽음의 놀이에서 빛과 생명,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정체성을 심어주는 날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이에 미주성시화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이 목회자들과 학부모님들께 경각심을 촉구하며, 교회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안 및 협조 요청사항

- 담임목사님들께서는 강단에서 할로윈데이의 비기독교적 요소를 명확히 설명하고,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교회는 할로윈데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각 교회 행사로 전환하여, 자녀들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 자체 행사가 어려운 교회는 지역별 연합행사에 참여하여 교육부 책임자와 함께 교회별 부수 운영 및 간식 제공과 각종 놀이를 통해 신앙 공동체 중심의 문화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연합행사 안내

- **일사:** 2025년 10월 31일(금) 오후 5시-9시
- **LA지역:** 새생명비전교회 (New Life Vision Church)
323-373-0110 / 4226 Verdant St., Los Angeles, CA 90039
- **OC지역:** 은혜한인교회 (Grace Korean Church / GMI)
714-446-6200 /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미주성시화운동본부 (MIJU HOLY CITY MOVEMENT)

연락처 : 213-448-3493
213-407-4569

공동대표 : 송정명 목사, 한기홍 목사
이사장 : 김재권 장로

주님처치, Tres Dias 통해 성령 안의 하나됨 체험!

Joonim Tres Dias 2기 개최 새로운 부흥, 공동체 회복 위해

주님처치(담임 최현규 목사)가 지난 10월 5일부터 8일까지 ‘Joonim Tres Dias(JTD)’ 2기를 개최해, 80여명의 팀 멤버와 참가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JTD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영성훈련 프로그램으로, 교단 탈퇴 이후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주님처치가 새로운 부흥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한 프로그램이다.

특별히, 2기 훈련에는 영어권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경험했다.

최현규牧사는 “내년에는 영어권 형제, 자매들을 위한 제3기 JTD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영어



주님처치, 제 2기 Joonim Tres Dias 훈련. ©주님처치

권 간사들과 리더들이 한국어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세대와 언어를 넘어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했다”

고 전했다.

‘비를 준비하시니 (He Prepares the Rain)’를 주제로 진행된 2기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

신 은혜의 단비가 모인 모든 이들의 마음을 적셨고, 참가자들은 서로의 언어와 문화가 달랐지만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깊은

영적 일치를 이루었다. 이들은 “언어가 다르지만 마음은 같았다”, “세대와 문화를 초월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체험했다”는 간증을 전하며, 이번 JTD가 단순한 수양회가 아닌 성령의 공동체 회복 운동의 시작점이 되었다고 고백했다.

최 목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광야로 인도하셨지만, 그곳에서도 단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JTD를 통해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Joonim Tres Dias(JTD)는 스페인어로 ‘예수님 안에서의 삼일간의 여정’을 의미하며,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 공동체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도록 돕는 영성 프로그램이다.

조셉 리 기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 찾고 계신가요?

믿음의 만남, 믿음의 결혼 Heaven Matched

신앙 안에서 배우자를 찾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을 세우기 위한 새로운 사역 ‘Heaven Matched’가 시작됐다.

이 사역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창 2:18)는 말씀에서 출발해, 믿음의 청년들과 시니어, 재혼을 원하는 이들을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연결하는 크리스천 매칭 사역이다.

Heaven Matched는 기존 결혼 정보회사가 아닌, ‘기도로 준비된 배우자 찾기 운동’을 지향한다. 외적인 조건보다 신앙과 인격,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한 만남을 돕는다. 운영 방식은 AI 매칭 시스템과 오프라인 리트릿 프로그램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참가자는 기본 프로필을 무료로 등록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 시에만 비용을 지불하는 ‘Pay as you go’ 방식으로 운영된다.

AI 매칭은 유럽에서 30년 이상 검증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며,



각자의 성향·가치관 데이터를 분석해 신앙 안에서 조화로운 짝을 추천한다. 또한 2박 3일간 진행되는 리트릿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 결혼의 의미를 배우며 자연스러운 교제를 나누게 된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복장과 액티비티를 통해 서로의 인격과 신앙을 확인하고, 이후에는 피드백을 바탕으로 매칭이 이어진다.

Heaven Matched는 고액의 회원제 대신, 안전하고 투명한 환경

을 제공하며, “결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여정에 동행하신다”는 믿음 아래 운영된다.

김한나대표는 “Heaven Matched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을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장이자, 교회가 결혼 사역을 함께 세워가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며 “관심 있는 교회들의 참여를 기다린다”고 전했다.

이메일: saearc@gmail.com
전화: (714) 510-6585
홈페이지: heavenmatched.com



최원일 담임목사

담임목사 위임 예배

초·청·함·나·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인랜드 교회는 최원일 목사님을 제6대 담임목사로 세우는 은혜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인랜드 교회와 함께 귀한 사명을 맡으실 목사님의 결을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일시 : 2025년 10월 26일(주일) 오후 4시
장소 : 인랜드 교회 본당 T.(909)622-2324
1101 N Glen Ave, Pomona, CA 91768

인랜드 최원일 담임 목사 위임 예배

포모나에 위치한 인랜드교회가 오는 10월 26일 주일 오후 4시 인랜드 교회 본당(91101 Glen Ave, Pomona, CA 91768)에서 제 6대 담임 최원일 목사 위임 예배를 드린다.

인랜드교회는 지난 7월 6일 제

6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투표를 통해 최원일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 부목사)를 88.4%로 청빙하기로 확정된 바 있다.

일시: 10월 26일 주일 오후 4시
주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전화:** (909) 622-2324

선한목자교회 50주년 기념 부흥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치노힐스 ECO 선한목자교회(고태형 목사)는 오는 10월 24일부터 26일(금-주일)까지 주안장로교회 주승중 목사를 초청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사도행전 21:14)라

는 주제로 창립 50주년 기념 부흥회를 연다.

10/24(금) 오후 7:30
10/25(토) 오전 6:30, 오후 7:30
10/26(주일) 오전 8:30, 정오 12시, 오후 3시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맹창현 고문번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남가주 기독교교회 협의회 주최

일일 무료관광에 초대합니다

아름다운 가을 풍경 속에서 주님을 위한 사역의 아름다운 미담을 나누며
동역자들과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자 합니다.

일시 : 2025년 11월3일(월) 오전 8시 출발
출발장소 : 620 S. Harvard Blvd. LA, CA 90005(바실 성당 주차장)
여행코스 : 샌디에고(라구나코브 비치-) 점심-)미드웨이군함, 오션파크 등
도착예정 : 오후 6시 30분, 620 S. HARVARD BL. LA CA 90005(바실 성당 주차장)
대상자 : 기독교 단체 사역자(선착순 55명/10월25일 마감)
참가비 : 전액 무료 (점심, 간식 제공)
신청및문의 : 310-706-7721(진건호 목사)



주최 :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 진건호 회장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센터메디컬그룹**

**제4회 시니어
골프대회**
in **BUENA PARK**



2025. 11. 03 (월)



오전 10시 샷건
오전 9시까지 체크인

 **골프 대회 참여 정보**

참가비

\$180

*참가자 이름으로 100% 전액 이웃돕기성금으로 기부됩니다.

참가인원

120명 한정

점심 도시락 & 디너 식사 제공

참가대상

만 64세 이상 시니어

대회주소

LOS COYOTES COUNTRY CLUB
8888 Los Coyotes Dr
Buena Park, CA 90621

 **오늘의 스코어? 선물 한가득 가져가셨습니다~**

> 행운의 홀인원 첫 주인공

\$10,000

현금 지급

> 아시아나 LA - 한국 왕복 항공권

> 가부키초스시LA 식사권

> 다이아 목걸이

> 청운부페 식사권

> 정관장 홍삼 세트

> 올림픽골프 상품권 + 골프용품

> 폴라리스 성형외과 상품권

> Park Golf 골프용품

> K-Beauty 성형외과 상품권

> Berryland 건강 제품

> 남 / 여 사우나 입장권

> 포크벨트 천연가족벨트 등등

총 \$20,000 상당의 푸짐한 상품을
실력과 상관 없이 참가자 전원 모두에게 함께 나눕니다!

*상품 목록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품 목록은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주최/주관

 **센터메디컬그룹**

후원

ASIANA AIRLINES

 BERRYLAND
fresh and delicious

 **포크벨트**

 가부키초스시

 JUNG KWAN JANG

 K-Beauty 성형외과

 OLYMPIC GOLF

 PARK GOLF, AI

 Polaris
medical aesthetics

참가 문의 (888) 847 - 3098 · 9 AM - 5 PM (월 - 금)

美 전직 목회자들 “가족을 우선시하라” 조언

목데연, 美 ‘2025년 목회자 이탈 조사’ 소개

“24시간 대기 압박 느꼈다” ... 심리적·정서적 부담 커
가족의 재정 불안 걱정 많아... “사랑하고 존중해 달라”

미국의 대표적 기독교 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리서치(LifeWay Research)가 최근 발표한 ‘2025년 목회자 이탈 조사(Pastor Attrition Study 2025)’ 결과가 한국교회에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이번 조사는 미국 주요 개신교 4개 교단(하나님의 성회, 나사렛교, 웨슬리안교, 남침례교단) 소속 전직 목회자 7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목회데이터연구소(소장 지용근)가 14일 <넘버즈 306호>에서 이를 소개했다.

조사 대상자 3명 중 1명은 45세 이전에 강단을 떠났으며, 가장 큰 이유는 ‘소명의 변화’(40%)로 나타났다. 이어 ‘교회 내 갈등’(18%), ‘변아웃’(16%), ‘가족 문제’(10%), ‘개인 재정 문제’(10%) 등이 뒤를 이었다.

전직 목회자의 절반 가까이(45%)는 목사로 사역한 마지막 해에 ‘심각한 교회 내 갈등’을 겪었으며, 10명 중 9명(87%)은 형태는 다르지만 교회 내 갈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변화 제안으로 인한 충돌’(56%), ‘평신도 리더들과의 갈등’(50%), ‘심각

한 인신공격’(49%)이 꼽혔다. 대다수는 ‘갈등의 징후를 찾기 위해 교회 구성원들의 말에 꾸준히 귀 기울였다’(86%)고 응답해, 갈등을 인지하고 예방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을 보여 줬다.

전직 목회자의 80%는 목회 중 “하루 24시간 대기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다”고, 64%는 “목회자라는 역할에 압도당한 느낌을 자주 받았다”고 했다. 또한 절반 이상(53%)은 “사역의 요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응답해 심리적 압박이 심했음을 보여 줬다. 전체 응답자의 68%는 “목회자로서 고립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해, 목회 현장의 심리적 외로움의 심각성도 드러났다.

그럼에도 전직 목회자 4명 중 3명(74%)은 ‘일주일에 5회 이상’ 설교 준비와는 별도로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가졌으며, 10명 중 7명(68%)은 ‘일주일에 최소 하루 이상 휴식을 취했다’고 답해, 영적 생활과 자기 관리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전직 목회자 10명 중 7명(73%)



©Ben White/ Unsplash.

은 “가족의 재정적 안정을 자주 걱정했다”고 답했다. 절반(50%)은 “사역 부담으로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못했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68%는 “일정이 겹칠 때는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했다”고 답해, 내면적으로 가족을 의식했음을 알 수 있었다. 65%는 “사역하던 교회에서 가족에게 진심 어린 격려를 해주었다”고 답해, 목회의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드러났다.

조사에 참여한 전직 목회자들은 현직 목회자에게 ‘사역 성공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물었을 때, “

가족을 우선시하라”(20%)는 답변을 가장 많이 했다. 목데연은 “목회가 아무리 중요해도 가정의 안정이 목회 지속의 토대”라고 해석했다. 이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읽어야”(16%), “자신의 소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14%), “기도하라”(9%) 등이 뒤를 이었다.

교회가 목회자를 지원하는 방법으로는 “담임목사 가족을 사랑하고 존중하라”(14%)와 “담임목사를 위해 기도하라”(1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휴가를 주고 보호하라”(12%), “격려하고 돌보

라”(11%), “지지해 주라”(10%), “명확하고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져라”(10%)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이는 목회자의 건강한 사역을 위해 교회 공동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목회자 가정에 대한 실질적 돌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이번 조사를 소개하며 “목회의 성공이 결국 ‘건강한 가정’ 위에 세워짐을 보여준다”며 “‘가족 돌봄’을 단순한 사적인 문제로 보지 말고, ‘지속 가능한 목회 리더십’의 핵심 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교회는 목회자 가정을 사랑하고 존중하며(14%), 정기적 휴가와 안식년을 제도화해 ‘힘의 리듬’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목회자 스스로도 공적 영역인 사역과 영적·개인 삶의 균형을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영적 훈련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목회자의 삶이 가정을 흑사시키는 ‘오직 사역 중심’에서 ‘가정이 중시되는 건강한 목회 생태계’로 전환될 때, 목회자의 번아웃을 줄이고 교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송경호 기자

<이전호 기사 “목회자들에 ‘세계’에 이어서>

성경 말씀이 법률과 동일한 위치도 아닙니다. 다문화·다원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니 마치 싸우자는 식의 표현으로 다가가선 안 되겠죠.

보수적이지만 합리적인 기독교인들은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이 문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극우도 극좌도 마찬가지인데, 폭력적·혁명적 방법을 사용하려 해요. 상식과 합리성 안에서 대화하고 이끌어 가야죠. 신앙과 성경의 언어가 아니라, 그들의 언어로 ‘번역’해서 전달해야 합니다. 이는 결코 타협하지는 것이 아니며, 그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표현하지는 것입니다. 낙태나 안락사가 ‘성경에서 죄라고 한다’고 그들에게 말한다면, 그들이 귀담아 들을까요? 오히려 낙태가 여성의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약자를 위하자면서 태아와 산모 중 누가 더 약자인지 등 사회학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도 왜 안 되는지 차분하고 겸손하게 설득해야죠. 힘들지만 그렇게 해야 우리

의 뜻이 관철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덮어놓고 ‘우리는 선하고 너희는 악하다’는 식으로 가면, 전도의 차원에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 신념을 포기하고 얼버무리자는 것이 아니라,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지는 방법론적 차원이예요.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누구를 찍으라는 건가요?’ 하면서 결론을 내려 달라고 하십니다. 카리스마적 설교를 좋아하고, 결정해줄지 바라시죠. 내 생각대로만 하면 잘못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40대만 돼도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곧바로 ‘왜요?’라고 되물어요. 설득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세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 허리가 없다는데, 다리도 없어요. 갈대기형이 되어가고 있는데, 40대 이하 세대를 다시 교회로 부르려면 합리적 언어로 설득해야 합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지만, 문화는 변하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는 방식은 소통으로 보기 힘든 일방적 선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업에서 학생들 중 80%가 비기독교

인인 가운데 기독교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가자’는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지만 매 학기 말이 되면 10명 정도는 ‘교회에 가보고 싶다’, ‘기독교가 궁금하다’고 해요. 젊은이들의 그런 특성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이상갑 목사: 설교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선동이 아닌, 선교적 언어로요. 변증 설교가 더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튀겨 나갑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뉴욕 변증 사역을 한국에서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 내용도, 오늘 말씀도 너무 비판 일변도 아닌가요.

이상갑 목사: 물론 책에서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하지만, 대안을 제시하고 결론은 긍정적입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얻기 위한 쓴소리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만 보고 끝나선 안 되겠죠. 선지자적 메시지만 던져선 안됩니다. 대안을 소개하고, 미래와 소망을 줘야죠.

올해만 비판을 좀 세계 했지만, 원래 논의했던 내용보다는 많이 순화됐습니다(웃음). 그만큼 심각성을 느끼시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야 대안을 통해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심각성을 잘 느껴서 변화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박혜정 선교사: 교회는 생각하는 힘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을 읽는 ‘세상 리터러시’를 갖추고 생각하는 힘을 회복하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문해력을 길러야, 극단적 기독교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아요. 그러려면 교회 안에 토론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부서별로 모임 시간도 있고 구약이나 목장 모임도 있지만, 그 안에서 이뤄지는 대화는 개인의 삶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슈들을 기독교인 시선과 가치관 안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판단해야 할 것인지 담론이 없어요. 교회는 세상

과 소통하기 위해 담론의 장을 회복하고, 구성원 하나하나가 능동적인 사고 주체가 돼야 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결정을 내리며, 분열되고 갈라진 세상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의사소통이 아닌, 수평적 의사소통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숙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Southwest's leading provider of quality
Desert Honey
since 1945!

We offer a wide variety of 100% pure and natural Arizona honey.

자연의 정직함, 건강을 선물하세요

미국 프리미엄 허니 브랜드—

CROCKETT HONEY

아리조나 사막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세 가지 특별한 꿀이 건강과 품격을 전합니다.
한국 방문 시,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꿀·꽃가루·로열젤리의 황금 조합

자연이 준 **면역력, 에너지, 항산화 효과**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Honey 3lbs
\$25 +tax

1 Desert Blossom Mesquite Honey
사막의 야생화와 메스키토 꽃에서 채밀된 부드럽고 향기로운 맛! 풍부한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이 가득한 천연 꿀



Bee Pollen
\$45 +tax

2 Crockett Honey (Original)
가장 순수한 꿀의 기본! 건강한 단맛과 자연 그대로의 영양을 담은 전통의 맛! 차, 토스트, 요리에다 다양하게 활용 가능



Royal Jelly
\$25 +tax

3 Crockett Honey with Royal Jelly
꿀 속의 황제, 로열젤리를 더한 프리미엄 건강식품!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 탁월한 영양 강화 꿀! 특별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로 안성맞춤

(Pick up Only)
전화 예약주문 **213-434-1170** prozusa1@gmail.com Pick up 장소: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서울메디칼그룹 X 한미메디컬그룹

하나가 되었습니다

더 많은 의료진, 더 많은 병원, 더 다양해진 케어

5,500여 명의 의료진

각 분야의 주치의와 전문의가 크게 늘어나
나에게 맞는 의사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대폭 확대된 네트워크

제휴 병원, 의료기관, 헬스플랜 등이 늘어나
더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올바른 영양섭취, 운동 등 생활 속 건강관리를
통해 만성질환 등에 대한 전문가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개 가까운 진료과목과 케어

일반진료에서 재활, 정신건강, 가정간호까지
환자 증상과 상황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크게 향상된 시스템

쉬운 진료 예약, 빠른 전문의 및 병원 허가 등
환자 편의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니어 맞춤형 통합 케어

평소 관리가 중요한 시니어를 위한 정기
체크업 등 한분, 한분 가족처럼 돌보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플랜 가입 및 변경 기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워진 **서울메디칼그룹**이
섬세한 진료와 편안한 서비스로
당신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800.611.9862**



SMG 카카오톡 채널에
방문하세요!

홍보대사 **고두심**



이 광고에서 사용된 지표는 SMG가 2025년에 남가주 지역의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 네트워크 규모에 대해 조사한 내부데이터에 기반한 것입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건강보험과 함께 독립된 의사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혜택과 네트워크 규모는 각각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헬스 플랜과 지역에 따라 다양합니다. 의료 서비스는 건강보험에 따라 제한, 제외, 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메디칼그룹 800-611-9862로 문의하십시오.

英 교계 지도자들 “전환치료 금지법, 기독교 범죄화 가능성”

영국의 주요 기독교 지도자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전환 치료’(conversion therapy) 금지 법안이 기독교 핵심 교리를 범죄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복음 전파나 자녀의 성별·성 정체성 문제에 대한 상담을 불법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The Telegraph)에 따르면, ‘렛 어스 프레이’(Let Us Pray) 캠페인과 기독교 연구소(The Christian Institute)가 주도한 공개서한에는 여러 교단을 대표하는 24명의 지도자가 서명해, 평등부 장관 올리비아 베일리(Olivia Bailey)에게 전달됐다.

지도자들은 서한에서 “노동당이 추진 중인 성적 지향 전환 시도 금지법에는 목회 상담까지 포함돼 있다”며 “이는 결혼과 성윤리에 대한 전통적 기독교 가르침을 범죄화하고, 일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불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법안이 성별 혼란을 겪는 자녀에게 신중할 것을 권유하는 부모의 발언까지 금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미 아동학



영국 런던.(사진은 기사와 무관)

대나 폭력행위를 처벌할 법적 장치가 존재한 다며, “법안 추진 세력은 교회의 일반적 사역을 학대와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명자들은 특히 “기도나 목회적 대화까지 ‘전환 치료’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기독교적 성윤리와 성별관에 대한 단순한 신앙 표현조차 불법으로 규정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기독교 연구소 대변인은 최근 열린 노동당 회의에서 베일리 장관이 “전환 치료 금지 초안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노동당은 수차례 법안을 약속했지만, 인권 기준을 충족하는 실현 가능한 법안은 단 한 번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노동당은 2024년 ‘평등과 기회의 사무국’(Office for Equality and Opportunity) 출범과 함께 전환 치료 금지를 최우선 입법 과제로 내세웠다. 당은 “성전환을 포함한 포괄적 전환 치료 금지법”을 약속하며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영국 성공회(Church of England)는 이미 2017년 총회에서 전환 치료 금지를 지지한 바 있다. 성공회 대변인은 최근 성명을 통해 “교단은 강압적 전환 치료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왔으며, 정부의 금지 방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환 치료에는 기도, 상담뿐 아니라 금식, 퇴마, 신체적 학대 등 극단적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2018년 영국 정부의 LGBT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가 전환 치료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2%는 실제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기독교 연구소는 지난 6월, 노동당 정부가 스코틀랜드국민당(SNP)과 협력해 법안 조율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잉글랜드와 웨일스를 위한 법안 초안이 “머지않아 공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당은 당선 공약집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탐색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포괄적이고 성전환을 포함한 전환 치료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명시했다.

한편 스코틀랜드 정부는 2024년 9월, 사법 검토 논란으로 자체 법안 추진을 일시 중단했지만 “영국 전역과 보완적 접근”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카우캅 스튜어트(Kaukab Stewart) 평등부 장관은 “만약 영국 정부의 법안이 충분하지 않거나 우리의 우선순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음 의회 회기에서 독자적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지난호 기사 ‘성경, 세상을 구원 하려는..’에 이어서〉

(p. 148, 루터는 이토록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반유대주의자였다)

이들 반유대주의는, 이스라엘을 미워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적한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과 언약관계는 영원한 것이 맞지 않은가?

“하나님이 그의 무조건적인 영원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교회도 버리실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스스로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하신 언약을 버릴 수 있다고 믿는다면, 교회가 지탱할 발판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셈이 된다.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이 아닐까.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p. 150)

3. 하나님의 백성: ‘한 새 사람’의 성취를 방해하는 반유대주의의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후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하였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벧전2:10).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교회

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이 연합하여 온전해진 성도의 무리, 곧 ‘한 새 사람’을 이룰 것(엡2:15)을 명령한다. 교회의 완성은 ‘한 새 사람’의 성취이다. 한 새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완성시키는 것(엡2:22)이다.

참으로 역사는 아이러니가 아닌가? 중세의 암흑기를 깨치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마르틴 루터(1483-1546)가 “가혹한 대체신학 입장을 촉진시켰다. 예루살렘은 루터시대까지 파괴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엄연한 현실을 루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셨다는 증거로 보았다. 루터의 잔인한 반유대인적 진술은 훗날 히틀러의 유대인 600만 학살의 정치적이고도 사회적인 명분을 제공하고기에 충분했다.” (p. 216, 오후 통째라!) 오늘날 ‘한 새 사람’의 성취를 방해하는 반유대주의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지난해(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규모 침공을 감행하며 시작된 하마스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 중이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마귀가 미워하듯, 유대인들에 대한 마귀의 증오는 끈질기다. 마귀는 메시아의 초림을 막으려 했으나(마2:13, 20)

결국 실패했다(21절). 마귀는 자기 운명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림을 방해하고 있다. 마귀는 홀로코스트(holocaust)에 대한 기억을 70년이 지나는 동안 희미하게 만들고 있다.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홀로코스트의 끔찍한 역사를 모르고 있다. 더구나 대한민국과 같은 해(1948년)에 이스라엘 국가의 재탄생(5월 14일)과 예루살렘 회복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국가를 점령국가, 인종학살, 인종차별 국가로 인식하고 공격한다. 그리고 마귀는 아직도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현대 유대인들을 위한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게 한다. 교회는 대체신학을 회복신학으로 바꾸고 유대인들에 대한 과거의 죄악을 회개하며, 유대인에 대한 증오에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한다. 그럴 때 한 새 사람 성취에 불을 붙이게 될 것이다.”

4. 대체신학을 극복하고, 반드시 ‘회복신학’이 필요하다.

서평 마치기 전에 대체신학에 대해 조금 더 들여다 보고자 한다. 상당수의 본 서평을 읽는 독자들은 혼란스러워 할 듯 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서평자도 이번 기회에 대체신학과 건강한 개혁신학이 어떻게 차

별되는지를 확실히 해 두고자 한다). 대체신학의 출발은 2,000년 전, 반유대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예수님의 초림을 방해하였던 사단이 대체신학의 뿌리인 셈이다. 사단은 유대민족을 증오한다. 반유대주의의 열매가 대체신학이기 때문이다.

4.1. “대체신학(replacement theology) 혹은 대체주의(replacement theory)”란?

“유대인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기독교로 이전 되었다고 가르친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안에서 이스라엘을 대체한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장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시지 않다.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오순절 이후 신약에서 ‘이스라엘’은 오직 교회를 가리킨다. 이스라엘에 주어진 언약들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목적, 약속은 이제 교회 안에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들은 많은 부분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도 대체신학은 기독교 교회가 축복받으리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p. 335, 구구 절절이 맞는 같지 않은가? 상당수의 보수주의 기독교인이 이렇게 믿는다)

유대인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라 저주와 심판 아래 놓였고,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로 대체되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로마 통치자와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이다(행4:27). 예수님은 유대민족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런 논리라면 교회가 범한 죄도 유대인 못지 않은 악을 행하였기에 버림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인가?”

“이스라엘에 주어진 언약들의 최종 성취란 측면에서 모형적(typical)이지만, 이스라엘 자체가 그 대형(antitype)으로 대체된다고 묘사된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과 약속의 본질상 이스라엘은 모형이 될 수 없다”. 예레미야서 31장 35-37절은 해와 달과 별이 없어지지 않은 한 이스라엘 국가는 지속될 것이고, 이사야서 66장 8절은 한 순간에 이스라엘이 태어날 것이라 말한다”(pp. 338-39, 이 밖에도 이스라엘의 미래를 말해 주는 성경구절, 마19:28, 23:39, 눅21:24, 행1:6, 롬11:26, 계7:4-8. 결코 이스라엘 국가는 모형의 기준이 아니다. 신약성경에 이스라엘과 교회는 공존하여 등장하나, 엄격히 구별하여 사용되었다).

NEW 2026 HYUNDAI Palisade
Calligraphy

NEW 2025 HYUNDAI Elantra Hybrid
Blue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충성한 혜택 가을스페셜

0%

APR Financing (차종에 따라서)

48개월까지 할부 가능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NEW 2026 HYUNDAI Santa Fe
Calligraphy

NEW 2025 HYUNDAI Ioniq 6
Limited RWD

NEW 2025 HYUNDAI Ioniq 5
Limited RWD

HYUNDAI Assurance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한인 메카닉 서비스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Frank Kim 323.823.0682
Sean Kim 213.605.2886
Jae Lee 714.319.4611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방글라데시 카그라차리 폭동
소수종교 차별의 결과”



▲방글라데시복음연맹 관계자들. ©방글라데시청년위원회

최근 방글라데시 남동부 카그라차리(Khagrachhari) 지역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 이후, 현지 기독교 공동체가 깊은 불안과 절망 속에 놓여 있다. 교회와 학교가 공격당하고, 여러 가정이 피신한 가운데 젊은 세대는 “미래가 없다”며 좌절감을 드러냈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현지 교회 관계자는 “학교를 다녀도 일자리가 없고, 언제 폭력에 휘말릴지 몰라 두렵다”며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도자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소수종교 공동체에 대한 구조적 차별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초, 카그라차리에서는 토착민 공동체와 평지인들 간의 갈등이 격화되며 충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교회와 기독교 학교가 파괴되고, 일부 교인들은 산악지대로 피신해 귀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교회 연합회는 “수십 가정이 집을 잃었으며, 피해자 상당수가 심리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 인구의 약 90%는 무슬림이며, 기독교인은 약 0.5%에 불과하다.

특히 카그라차리와 랑가마티 등 치타공힐 트랙츠(Chittagong Hill Tracts) 지역에는 차크마(Chakma), 마르마(Marma), 트리푸라(Tripura) 등 토착민 기독교인들이 집중돼 있다. 이 지역은 1997년 ‘힐 트랙츠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무력 충돌과 토지 분쟁이 반복돼 왔다.

현지 교계 지도자들은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 “폭력 사태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소수종교 공동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내무부는 “상황을 주시 중”이라는 입장만을 내놓았으며, 구체적인 대응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영국의 기독교 인권단체 릴리스 인터내셔널(Release International)은 최근 보고서에서 “방글라데시 기독교인들이 교육, 공무원 임용, 토지 소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소수종교 공동체 보호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현지 목사는 “우리는 단지 평화롭게 예배드리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싶을 뿐”이라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의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중국, 구금 목회자 성경
가족엽서 금지… 가혹한 처우 지속



황이쯔 목사 ©한국VOM

중국 저장성 원저우시 핑양현에 위치한 핑위 교회(Fengwo Church)의 황이쯔(Huang Yizi) 목사가 국가 승인 없이 설교와 안수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2개월 넘게 구금된 가운데, 당국이 황 목사가 성경을 읽거나 가족과 우편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조차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순교자의소리(한국VOM)와 미국 기반의 동역 기관 차이나 에이드(China Aid)는 황 목사가 지난 7월 30일부터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구금 중에도 가족과 편지를 교환하거나 성경을 읽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 목사는 2014년 원저우시 교회 십자 철거 사건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1년간 수감된 뒤, 국영 삼자교회 협회(Three-Self Church Association)에서 탈퇴했다. 이후에도 당국은 황 목사를 반복 체포하며 ‘비밀 감옥(black jail)’로 이송, 5개월간 구금한 기록이 있다. 당시에도 가족과 변호사 접촉이 제한됐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현숙 폴리(Hyun Sook Foley) 대표는 황 목사가 2018년 ‘기독교 신앙을 위한 선언서(A Declaration for the Shake of the Christian

Faith)’에 서명한 이후 지속적인 감시와 심문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설교 녹음물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불법 사업 경영’ 혐의까지 추가되어 7월 30일 체포됐다.

현숙 폴리 대표에 따르면, 황 목사는 가족과의 우편 연락뿐 아니라 성경 읽기에도 제한을 받는 가혹한 환경에 구금돼 있다. 변호사 위안 마오(Yuan Mao)는 구치소에 성경과 편지를 전달했으나, 구치소 측은 수령 후에도 황 목사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다. 황 목사의 가족 또한 목사로부터 편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황 목사의 부인 린 아이리(Lin Aili) 사모는 구금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마음은 평안하며,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위로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사모는 특히 황 목사와 함께 구금된 네 명의 기독교인들의 안전과 조속한 석방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요청했다.

한편, 황 목사의 구금 적법성을 검토해 달라는 변호사의 공식 요청에도 불구하고, 핑양 현 당국은 9월 4일 “구금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내세대에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청청년부/EM 오후 2:0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책임지며, 이만가정을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e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일씀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청소년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를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새벽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OMC 중고등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 소년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10: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coffe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일새벽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설교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절절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새벽예배 새벽 6:30
EM 주일예배 오전 10:30
한현중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국학교주일 오전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기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블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황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윤성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대홍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경한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장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c.org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방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O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월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찬양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c.org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매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학창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국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지영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회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여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금)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아침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장장년/교육부서)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 1부예배 8:00 AM 금요찬양예배 7:45 PM
주일 2부예배 11:00 AM 교회학교예배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 6:00 AM

신용환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5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7: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모든 스크린은 복음의 통로”
신앙과 미디어 사역의 방향 제시



(왼쪽부터)멜빈 리베라, 타이하나 가르시아, 알베르토 쿠티에 신부, 그리고 레이 크루즈는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디어 · 뮤직 · 마케팅 서밋'에 함께 참석했다. ©Diario Cristiano Internacional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태너셔널(CDI)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본질을 지키며, 신앙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논의가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렸다고 10일보도했다. 최근 열린 '미디어·뮤직·마케팅 서밋(Media Music Marketing Summit)'에서 라틴계 방송인과 언론인, 사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모든 스크린을 통한 복음 전파'를 주제로 미디어 사역의 비전과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패널 토론은 로치 칸틸로(Rochy Cantillo)가 사회를 맡았으며, 유니비전(UNIVISION) 기자이자 13차례 에미상을 수상한 타이하나 가르시아(Tayhana Garcia), 라틴계 방송의 대표적 사제 알베르토 쿠티에(Alberto Cutie) 신부, 라 포데로사(La Poderosa) 990AM 콘텐츠 디렉터 레이 크루즈(Ray Cruz), 그리고 스페인어 팟캐스트 제작자 멜빈 리베라(Melvin Rivera)가 참여했다. 이들은 전통 미디어에서 디지털 플랫폼으로의 변화 속에서도 “모든 화면은 복음의 통로”라며,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는 미디어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르시아 기자는 “저널리즘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사회를 섬기는 소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탐사 보도를 통해 부패한 주택관리조합의 문제를 드러내거나, 무더운 여름 냉방이 끊긴 노인 아파트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실제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를 나눴다. 이어 “세속 뉴스 현장에서조차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며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두신 이유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파더 오프라(Father Oprah)’로 불리는 쿠티에 신부는 방송 사역을 통해 수

많은 이들이 다시 신앙으로 돌아온 사례를 전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미디어의 현장에 두셨음을 깨달은 순간, 방송은 나의 심자가 아니라 사명이 되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때로 미디어는 나를 시험대에 올렸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의 길을 여셨다”고 말했다. 라디오 방송인 레이 크루즈는 세속 미디어에서 일하며 느낀 갈등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내게 ‘내가 창조한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며, 그 이후 ‘세속적 복음전도(Secular Evangelism)’의 비전을 품게 되었다고 전했다. 그는 “소셜미디어는 존재감을, 전통미디어는 신뢰를 준다. 하지만 둘 중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두 세계가 함께 움직일 때 복음이 확장된다”고 말했다. 팟캐스트의 선구자 멜빈 리베라는 “가장 중요한 것은 플랫폼이 아니라 청중의 필요를 아는 것”이라며,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는지를 아는 것이 미디어 사역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AI(인공지능)는 올바르게 사용된다면 콘텐츠 기획과 전파를 혁신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패널 토론의 마지막에서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기독교 커뮤니케이터의 사명은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변화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레이 크루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예술과 창의력을 세상에 내어주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CDI는 이번 서밋은 기술의 발전과 플랫폼의 다양화 속에서도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최승연 기자

미 프로풋볼(NFL) 선수,
경기 승리 후 “모든 영광 예수께”



마이애미 돌핀스의 쿼터백 투아 타고바일로아 선수. ©miamidolphins.com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미국프로풋볼(NFL) 마이애미 돌핀스의 쿼터백 투아 타고바일로아(Tua Tagovailoa) 선수가 최근 경기 승리 후 인터뷰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2일 보도했다.

CP는 돌핀스가 지난 9월 29일 열린 경기에서 뉴욕 제츠를 27대21로 꺾었다고 밝혔다. 경기 직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타고바일로아는 “무엇보다 먼저, 모든 영광은 나의 주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밤 대부분의 선수들이 안전하게 경기를 마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타고바일로아는 또 경기 중 부상을 입은 선수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전하며 “무엇보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CP는 그의 신앙 고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밝혔다. 2018년 앨라배마대학교에서 대학 미식축구팀 쿼터백으로 활약하던 시절, 조지아대와 결승전에서 승리한 후에도 그는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린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

했다. 그는 당시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라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같은 해 언론 인터뷰에서 “경기 중 기도하며 방언으로 기도했다”며 “그 덕분에 마음이 평안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내 침착함은 믿음에서 온다. 나는 평안을 위해 기도한다”고 그는 말했다.

2019년 시즌 중 부상을 입은 후에도 그는 신앙을 굳게 지켰다. 당시 그는 “하나님은 언제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진정으로 알아야 한다. 사람은 오직 그분 안에서만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신앙은 개인의 삶과 소셜 미디어에서도 드러난다. 타고바일로아의 X(옛 트위터) 계정에는 성경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이 소개돼 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느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셨다’는 구절이다.

최승연 기자

조용히 떠나는 노년층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샘 레이너 목사. ©churchanswers.com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샘 레이너 목사의 기고글인 ‘노년층 성도들이 충격적인 숫자로 교회를 떠나고 있다’(Senior adults are leaving the Church in alarming numbers)를 12일(현지시각) 게재했다. 레이너 목사는 플로리다의 웨스트 브래튼튼 침례교회의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으며 처치 앤서스(Church Answers)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수년 동안 교회 지도자들은 젊은 세대의 이탈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우리는 밀레니얼 세대의 데이터를 분석했고, Z세대에게 어떻게 다가갈지를 놓고 논의했으며, “다음 세대”를 붙잡기 위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주제로 한 수많은 콘퍼런스가 열렸다. 이 모든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거의 주목받지 못한 또 다른 ‘출애굽’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노년층의 조용한 이탈이다.

젊은 세대처럼 노년층은 화려한 선언이나 분노에 찬 SNS 글로 떠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서서히 사라진다. 매주 빠짐없이 예배당을 채웠던 부부의 자리가 비어 있고, 수십 년 동안 성경공부를 인도하던 교사가 어느 날 보이지 않는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난 후 한 과부가 더 이상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 소란도, 갈등도 없다. 오직 부재(不在)만 남는다.

이 조용한 이탈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 많은 교회에서 노년층은 예배 출석의 중심축이다. 그들은 가장 신실한 헌금 자이며, 가장 꾸준한 봉사자이자, 가장 믿음 깊은 중보기도자들도이다. 이들이 떠나면 교회는 헌금함에서, 친교실에서, 그리고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 공백을 즉시 느낀다.

젊은 세대만 바라보다 보면, 바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침식을 놓칠 수 있다. 교회는 노년층의 조용한 출교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존재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 자산이다.

숫자가 말하는 현실

교회 감소에 대한 통계는 대개 젊은 세대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수치는 노년층에 대해서도 냉정한 사실을 보여준다. 그들의 교회 내 존재감은 예전만 못하며, 많은 목회자들이 조용히 체감하고 있는 추세를 데이터가 뒷받침한다.

갤럽(Gallup)의 지난 20년간 연구에 따르면, 2000년에는 65세 이상 미국인의 약 60%가 매주 교회에 출석했다. 그러나 2020년에는 그 수치가 45%로 떨어졌다. 단 한 세대 만에 15%포인트가 감소한 것이다. 퓨 리서치(Pew Research) 또한 ‘침묵의 세대’(1946년 이전 출생)와 고령 베이비붐 세대의 종교 활동이 지난 10년 동안 약 10%포인트 줄어들었다고 보고했다.

작은 교회일수록 그 충격은 더 크다. 출석 인원이 200명 이하인 교회에서는 노년층이 가장 신실한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한다. 그들이 빠지면 단지 한두 명의 결석이 아니라, 교회가 수년간 의지해온 안정감과 헌신의 상실이다.

이 현상을 단순히 노화의 결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건강 문제나 이동의 어려움이 일부 원인이지만, 연령층 전반에서의 지속적 하락은 더 깊은 이유가 있음을 시사한다. 노년층은 조용히 물러나고 있고, 우리는 그 이유를 묻지 않고 있다.

왜 노년층은 교회를 떠나는가

그 이유는 대체로 복잡하고 미묘하다. 분노나 불만을 표출하기보다는, 개인적이고 조용한 이유로 멀어진다. 가장 흔한 이유는 건강과 이동성 문제다. 밤 운전이 어렵고, 청력과 시력이 떨어지며, 계단이나 주차장조차 부담이 된다. 배우자나 가족을 돌보느라 지쳐 예배 참석이 힘든 경우도 많다.

또 다른 요인은 또래 상실감이다. 과거에는 친구들로 가득했던 성경공부반이 이제 몇 명만 남았다. 외로움이 깊어지고, 교회는 잃어버린 관계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면 참석 의욕도 함께 사라진다.

교회 내 우선순위 변화도 영향을 미친다. 많은 교회가 젊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 집중하지만, 그 결과 노년층은 주변부로 밀려난다. 예전엔 “우리 교회”라 느껴졌던 곳이 이제는 “다른 세대의 교회”로 느껴진다. 예배 형식과 리더십의 변화 또한 거리감을 만든다. 음악 스타일, 예배 속도, 젊은 목회자의 문화적 감수성 등은 그들에게 낯설다.

그들은 소리치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한 발 물러선다. 그리고 많은 경우, 교회는 너무 늦게서야 그 부재를 깨닫는다.

재정과 사역에 미치는 여파

노년층의 이탈은 단순히 빈자리가 아니라 교회의 생명선에 타격을 준다. 먼저 재정적 영향이 크다. 미국복음주의재정책임위원회(ECFA)에 따르면, 65세 이상이 교회 전체 헌금의 약 40%를 담당한다. 그들은 헌금을 신앙의 의무로 여기는 세대다.

그들이 떠나면 헌금함은 즉각 가벼워지고, 이는 교회의 운영비뿐 아니라 선교, 구제, 아웃리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유산 헌금(legacy giving)도 줄어들어, 교회가 미래 세대를 위해 사용할 자원을 잃게 된다.

사역적 영향도 심각하다. 노년층은 가장 신실한 봉사자다. 일찍 와서 늦게까지 남고, 주방을 지키며, 주보를 접고, 뒤에서 묵묵히 섬긴다. 그들이 빠지면 단순한 구성원이 아니라 기둥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기도, 재정, 봉사 세 영역이 동시에 흔들린다.

놓치고 있는 사역의 기회

노년층의 이탈은 단순히 문제만이 아니라 놓쳐버린 축복의 기회이기도 하다. 그들은 수십 년간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 지혜와 간증의 보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교회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만들지 않는다. 대신 새 프로그램에만 집중하며, 노년층의 목소리는 점점 묻힌다.

또한 그들은 시간과 헌신의 여유가 있다.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에 쫓기는 젊은 세대와 달리, 기도와 멘토링, 섬김에 더 깊이 참여할 수 있다. 바울이 디모데 2장에서 말한 “늙은 자들이 젊은 자들을 가르치라”는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들의 믿음은 변함없는 안정감을 교회에 제공한다. 급변하는 시대에 교회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닻과 같다.

교회가 취해야 할 대응

이 조용한 출교가 실제라면, 교회는 인정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1. 의도적인 돌봄: 교통 지원, 온라인 예배 연결, 심방 등 작은 배려가 “당신은 잊히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2. 세대 통합 사역: 세대를 구분하지 말고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는 장을 마련하라. 젊은 세대는 지혜를 배우고, 노년층은 활력을 얻는다.
 3. 가시적 리더십 참여: 은퇴한 교사, 과부, 노년의 성도에게 멘토와 상담자의 자리를 주라. 그들의 신앙 여정이 제자훈련의 교재가 될 수 있다.
 4. 설교와 사역에서의 공감: 노년층의 외로움, 건강, 돌봄의 부담 등 현실적 문제를 설교 속에서도 다뤄야 한다.
- 교회가 노년층을 다시 품는다면, 우리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견고히 세우는 것이다. 그들의 기도, 헌신, 그리고 존재는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따라서 교회는 그들의 자리를 비워줄 수 없다.

최승연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아기도회)(마지락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예배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9th ~ 12th)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은혜의 밭교회
은혜의 밭,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KM) 오전 10:30 중·고등부(Youth) 오전 10:30
주일예배(DM) 오전 10:30 대학청년부(College) 오전 10:30
유년부(K-2) 오전 10:3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2:40
초등부(3-5) 오전 10: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렘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요 내 길에 빛이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가게들) 오전11:0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영아부예배(민음체)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일(금) 오후 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5:30(월-토) 오전 6:00(토)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일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일(아침)예배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오영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D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성경회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00

이충환 담임목사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목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리쉬)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목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참회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E. lvk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예배 오전 9:00,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조승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00 PM
새벽기도회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woorijoeunchurch.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32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 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비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축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포리뼈 통증 출혈로 앉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각종 보험 취급 \$70

배변은 숙면제거와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원발부 \$70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고기, 김치만두

차림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지난 12일, 오랫동안 라스베가스 지역에서 홈리스를 섬긴 노명희 선교사가 LA씨티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노명희 선교사, 미주복음주의장로회 목사 안수 받아

지난 10월 12일(주일), 오랫동안 라스베가스 지역에서 홈리스를 섬긴 노명희 선교사가 LA씨티교회(씨니 김 목사)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며 새로운 사역의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날 안수식은 1부 예배와 2부 안수예식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미주복음주의장로회가 주관했다. 교단 관계자들과 지역 교계 인사들이 함께 모여, 한 평생 복음과 섬김으로 헌신해 온 사역자의 부르심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예배는 지은옥 장로(LA씨티교회)의 찬양과 기도로 시작됐으며, 찬송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씨니 김 목사(LA씨티교회)의 이사가 41장 8~10절 말씀 봉독에 이어, 미주복음주의장로회 전총회장 김재연 목사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재연 목사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으로 완성된다"고 전했다.

그는 또 "목회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길이며,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비로소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며 "사명자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명희 목사는 이미 지난 9년 동안 라스베가스에서 자비랑으로 홈리스와 소외된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해왔다"며 "오늘의 안수는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이미 헌신된 삶 위에 하나님의 인정을 더하신 사건"이라고 축복했다.

예배에 이어서 안수 예식이 진행됐다. 씨니 김 목사의 사회로, 안수 대상자 소개 및 서약, 심진구 목사의 안수 공포와 안수패 증정, 특송, 전모세 목사(전 총회장)의 축사, 샘 신 목사(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의 권면, 폴 김 목사의 축하 및 광고, 노명희 목사의 감사인사, 찬송 '행군 나팔 소리에', 전지승 목사(미주복음주의장로회 총회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가 마무리됐다. 샘 신 목사는 세 가지 권면을 전하며 노 목사에게 목회자의 본질을 잃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는 "첫째, 목회자는 먼저 주님 앞에 사는 사람"이라며 "많은 일을 감당할 때가 오지만, 그보다 먼저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습관을 가지길 바란다. 사랑의 깊이가 곧 사역의 깊이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사람을 향한 눈을

잃지 말라. 사람은 설교로 변화하지 않으며 사랑으로 변한다"며 목회의 중심이 사람을 향한 사랑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끝까지 주님께 드려진 종으로 남으라. 오직 성령 안에서, 사랑과 눈물로 끝까지 충성하는 목사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폴 김 목사는 광고를 통해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한다며, 노명희 목사의 안수의 의미를 나눴다.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은 노명희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 감사하다"며 "이제부터는 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했다. 미주복음주의장로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노명희 목사는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학부와 선교학 석사,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쳤으며, 최근 미주복음주의장로회 총회 목사 고시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현재 플러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 선교학 박사 과정 중에 있으며, 지난 9년간 LA씨티교회 파송 선교사로서 라스베이거스 지역에서 자비랑으로 홈리스 사역과 주중 예배, 목양 사역을 감당해왔다.

주디 한 기자

베델교회 더브릿지 콘서트...음악으로 치유 전한다

동일본 대지진 15주년을 기념하는 메모리얼 자선 음악회 'The Bridge Concert'가 오는 10월 25일(토) 오후 6시, 베델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일본과 한국의 신앙 공동체가 하나 되어 '상처 입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다리(Bridge)'로 준

비됐다. 이번 무대의 총연출을 맡은 공민(Paul Min) 선교사는 과거 유재석·유희열 등이 소속된 기획사 '안테나(Antenna)'의 공연 디렉터로 활동하며, 동방신기·빅뱅 등 정상급 K-POP 아티스트들과 협업한 화려한 경력을 가진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음악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대에 오르는 스가 나오키(Naoko Suga)는 UCLA와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켄터키 오페라와 오페라 아이오와 등 미국 주요 무대에서 지휘자로 활동해왔다. 문의: 손용주 목사 (949) 854-4010

B T S SOLAR DESIGN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 전기세 50~90% 절감 *

FREE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의게 원가에 제공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www.btssolardesign.com



SCAN ME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5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LA 213.500.8000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OC 714.702.0151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제2기

We Bridge

교회 모집

We Bridge 사역은?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가
아직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미자립교회를 섬기며
함께 세워가는 사역

예배의 회복과
건강한 교회 성장을
돕는 사역

목회자 자기 개발을
돕는 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 제공

We Bridge교회 **선정기준**

1. 교회 설립 10년 미만의 교회
2. 자체 건물이 없고 예배 장소를 빌려 예배 드리는 교회
3. 건강한 교단의 교회
4. 담임 목사 나이가 59세 미만, 담임 목사가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교회
5. 예배인원이 성인 40명 이하의 교회

선정된 교회에 주어지는 **혜택**

3년간 매월 \$500 지원 (2026년 1월~2028년 12월)

- **신청기간** : 2025년 10월 25일(토)까지
- **신청방법** :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선정발표** : 2025년 11월 1일까지 개별통지
- **문 의** : 기독교일보 213-434-1170
chdailya@gmail.com



“교회가 교회를 세웁니다” We Bridge 사역 1기 감사 및 2기 출범예배

- **날짜** : 2025년 11월 11일(화) 오전 10시 ~1시
- **장소** : 충현선교교회(담임 국윤권 목사)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새라 김 칼럼

트랜스젠더 선수와 경기 거부했던 기독교 학교, 법정에서 승리!



새라 김 대표
TVNEXT.org

미전역에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 명령들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곳곳에서 법정 승리를 알리는 기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버몬트주에 있는 크리스천 고등학교 여자 농구팀이 신앙과 여학생들 안전의 이유로 트랜스젠더 선수와 경기하는 것을 거부한 결과, 주(State) 체육 협회에서 완전히 퇴출당하면서 법적 소송이 들어간지 2년만에 미연방 법원에서 크리스천 학교의 손을 들어준 승리의 소식입니다. 이번 미드 버몬트 크리스천 고등학교(Mid Vermont Christian School-MVCS)의 승리는, 수년간 미 전역적으로 신앙의 고귀함과 자유를 지키려던 학생들, 교사들, 크리스천들에게는 큰 상징적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더 이상 정치적(PC)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신앙의 자유회복을 톡톡히 보여주는 중요한 승리의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판결의 뒷배경:

2023년 2월, ‘Eagles(독수리)’로 알려진 미드 버몬트 크리스천 학교(MVCS)의 여고생 농구팀은 버몬트 주에서 열리는 토너먼트 경기에 출전하기로 되어있었지만, 상대팀 명단에 키 180cm가 넘는 생물학적 남성 트랜스젠더 학생이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후에, MVCS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성경적으로 “여자”로 인정할수없는 트랜스 남학생이 있는 롱 트레일 스쿨(Long Trail School)와의 플레이오프 경기출전을 포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신앙을 선택한 결정; 트랜스젠더와의 경기를 거부한 댓가는 가혹!

2023년 당시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Pro-Transgender 정책화 된 문화속에서, MVCS 여고생 농구팀이 출전을 포기한것은 가혹한 결과물을 예상할수있는 대단한 신앙의 결정이었습니다. MVCS 결정의 결과로, 버몬트 교장 협회(Vermont Principals’ Association -VPA)는 MVCS여고생 농구팀을 체육 협회에서 제명해버릴뿐 아니라, MVCS해당 학교를 주정부가 후원하는 모든 ‘스포츠’ 및 스포팅 경연대회, 과학 박람회, 토론 대회같은 ‘비스포츠’ 경연대회에서까지 퇴출시켜버리는 가혹한 처벌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한 학교!

미드 버몬트 크리스천 고등학교는 버몬트 교장 협회(VPA)의 차별적이고 부당한 처벌에 맞서 ADF (Alliance Defending Freedom)라는 자유수호 기독교 변호단체를 통해 버몬



트 교장 협회와 관련된 주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2년만인 2025년, 마지막 판결이 될 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은 버몬트 지방법원(District Court) 명령을 뒤집은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MVCS 학교가 버몬트 교장 협회에 재가입 할 수 있도록 잠정적 금지 명령을 내리며 가처분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소송을 받은 버몬트 교장 협회(VPA)의 제이 니콜스 사무총장은 공개적으로 기독교 학교들을 비판하며 미드 버몬트 고등학교(MVCS)의 결정을 “종교적 자유로 가장한 노골적인 트랜스젠더 차별”이라고 기록하고있습니다. 반면, 미드 버몬트 크리스천 학교(MVCS)의 이글스(Eagles) 팀을 거의 10년간 이끌어온 크리스 굿윈(Chris Goodwin)감독은 자신의 딸도 MVCS 여고생 농구팀에서 뛰고 있다며 다음처럼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만일 우리가 그 경기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우리는 ‘남자도 여자일 수 있고 남성 운동선수도 여

성 운동선수가 될 수 있다’는 버몬트주 정부의 본질적으로 반성경적인 시스템적 이념에 동의하는 것이 되는것이기에 경기를 포기했다”

Alliance Defending Freedom 의David Cortman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유사한 상황에 직면한 다른 기독교 학교들을 보호할수 있는 좋은 선례를 세웠다고 다음처럼 말했습니다. “MVCS 학교가 종교적 신념을 지키는 것과 모든 운동부 활동을 포기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강요한 것은 주 정부가 내린 매우 부적절하고 차별적 결정이었다”

“그래서 미연방법원이 그 잘못을 바로잡아 준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제 MVCS 학교가 모든 스포츠와 비스포츠 활동에 복귀하고 다른 모든 학교들과 공정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승리는 다음 말씀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계속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는 한주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율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 29:25

민중기 칼럼

가나안 정복을 명하신 하나님의 의도



민 중 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원로목사

이스라엘군이 2025년 10월 10일 12시를 기해 가자시티에서 철수했습니다. 하마스의 기습으로 시작된 2년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초소와 진지를 해체하였고, 하마스는 72시간 내, 10월 13일 정오까지 살아남은 인질과 시신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67,000명의 사망자를 내고 도시가 초토화된 이후,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자 시민은 이스라엘 수상 네타냐후보다 중재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냅니다. 성경의 신명기, 여호

수아와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새 나라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출애굽은 당시의 노예들이 최강대국 이집트와 겨루어 성취되었고, 가나안 정복은 잘 축성된 원주민의 성채를 함락시켜야 했습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도우신 하나님은 두려운 잔상을 우리 마음에 남깁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나안 정복을 명하신 하나님이 공평과 정의를 요청하시는 아모스 선지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복을 명하신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한 앗시리아를 회개시킨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사랑과 구원의 왕이십니다.

가나안 정복과 유대왕국의 건설을 그러면 어떤 명분과 근거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가나안 정복은 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신명기 9장 1-5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의로움으로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가나

안에 살고 있던 “민족들이 악함으로 쫓아냈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관영한 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십니다.

둘째는 가나안에 있던 악취 나는 문화를 척결하기 위함입니다. 레위기 18:3은 “애굽 땅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금해야 할 범죄의 내용이 우상숭배, 자녀를 몰래 신에게 바치는 인신 공양, 그리고 간음,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등의 성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이 범죄는 18장, 20장에서 이중으로 비판되며, 그 땅의 가증한 일 때문에 주민을 토하여 내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아울러 18, 20장 사이 19장에서는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레 19:18)는 위대한 가르침이 제시됩니다.

셋째, 하나님은 노예를 해방시킨 후, 위대한 신법(divine law)을 가진 “제사장 국가”를 건설하여 열방의 등불을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유대왕국은 왕이 있기 전에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모세 5경이라는 법전이 있었고, 그 나라는 역사상 최초로 등

장한 제한군주제 국가였습니다. 법치의 의무는 억압적이기보다는 출애굽기 언약과 신명기 언약, 즉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래 맺어진 합의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이 언약 안에는 빚을 탕감하고 노예를 해방하는 안식년, 토지를 재분배하는 희년의 법규가 있었습니다.

제사장 나라 건설을 위해 가나안 사람과 통혼하지 말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전쟁이 종교적으로 요청되었으나, 실제로 유대민족은 타협하고 가나안 문화를 수용했습니다. 견고한 성읍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이나 지금의 가자를 포함한 해안지대, 그리고 내륙 벤스안의 원주민들이 그대로 거주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삿 2:23).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운동은 거의 실패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나 그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악함으로 인간의 강함을 이겼습니다.



결혼할 준비가 되셨나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27-28)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결혼 생활에서 기쁨과 삶의 목적을 찾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을 꾸리도록 돕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사역은 온라인 데이트를 대체하는 안전한 대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경건한 결혼 생활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적합한 사람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김하나, 설립자/소유주

문의전화 (714) 510-6585 **SaeArc@gmail.com**

무료로 신앙을 기반한 지역 싱글들과 함께하세요

- 신규 지원자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1차 면접 매치메이커와의 만남

저희는 신앙에 기반한 안전하고 개인적인 매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가치관과 삶의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을 연결해 드립니다.
- AI 시스템을 활용하여 매칭을 찾는 동안 초대를 기다리세요.**

그림 이벤트 시간 이벤트, 식사 포함

엄선된 지원자들을 만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게 맞는 만남을 위한 개별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는 편안하고 따뜻한 이벤트를 만들어 드립니다.
- 다른 싱글들을 만날 수 있는 행사에 등록하세요.**

싱글 수련회 2박 3일 (식사 5회 포함)

아늑한 산 속 휴양과 함께 활동, 대화, 그리고 만남의 기회를 통해 성장하고, 우정을 쌓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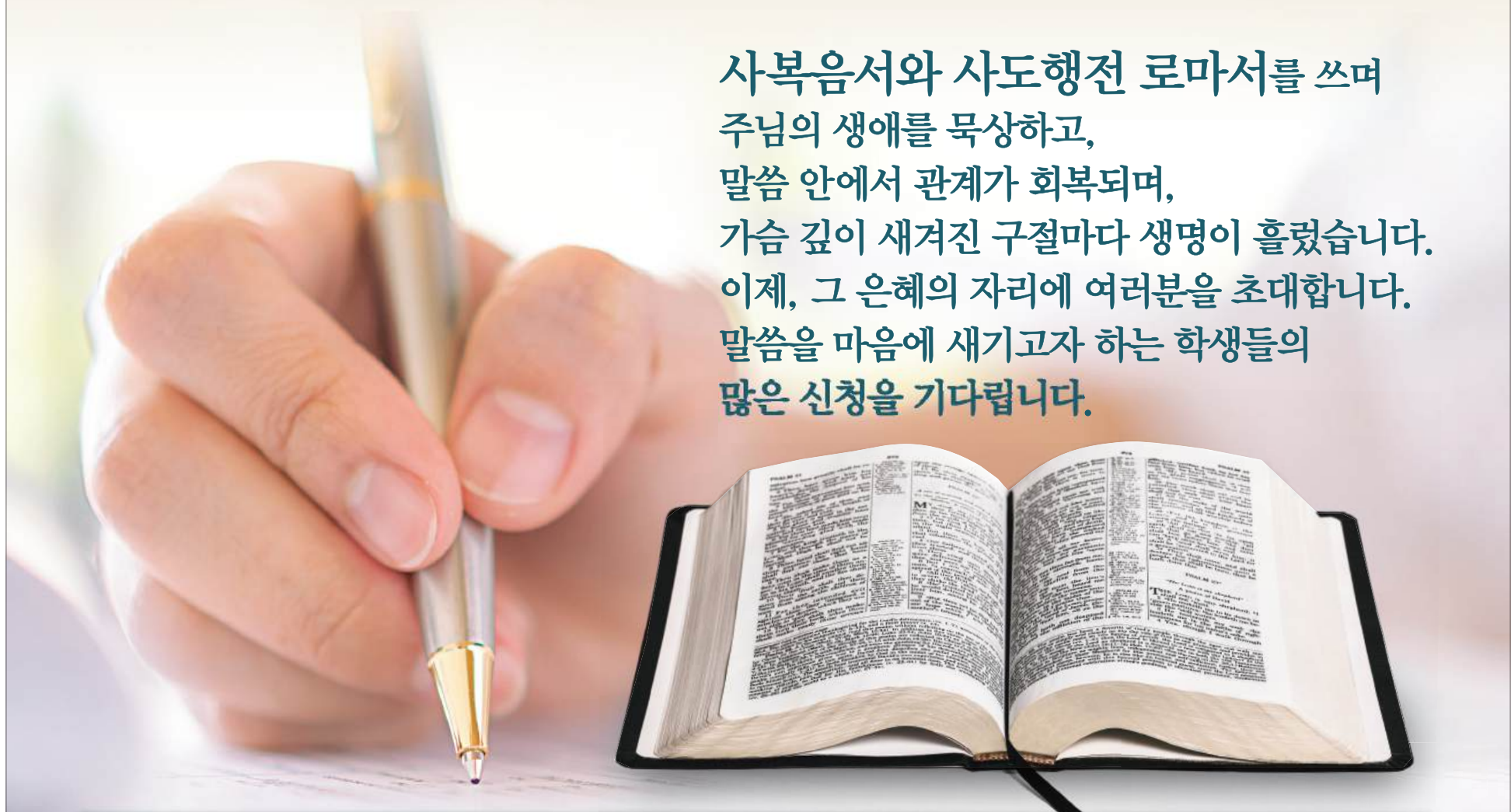


HEAVENMATCHED.COM
GOD IS OUR MATCHMAKER!

여기를 스캔하여 무료로 가입하세요



성경필사 제3기 장학생 모집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로마서를 쓰며
주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며,
가슴 깊이 새겨진 구절마다 생명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을 기다립니다.

지난 1기와 2기 장학생들이 고백한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 “필사하는 동안 제 삶이 변했어요.”
-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제게 열려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서서히, 저는 제가 붙들고 있던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 “나는 성경 필사를 통해 희망을 품게 되었고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주님과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 프로그램에 대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합니다.”
-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 “하나님께서 성경과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지 아는 것은 정말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성경 필사 본문 (한글, 영문 중 선택 가능)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 장 학 금** 1인당 **\$1,000** (선정인원 30명)
- 응모대상** 현재 재학중인 고등학생, 대학생(나이 만14세~23세)
- 신청방법**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신청마감** 2025년 11월 8일(토)까지
- 장학생 선정발표** 2025년 11월 15일(토) 개별통보
- 필사노트 제공 및 교육** 2025년 11월 22일(토) 오전 10시

등록신청



- 장 소** 세계등대교회(담임 김도일 목사 1479 E. Broadway, Glendale, CA 91205)
- 장학금 전달식** 2026년 7월 중(장학생들에게 날짜와 장소는 추후에 알려 드림)
- 문 의** 기독교일보 213-434-1170 chdailyreporter@gmail.com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기독교일보



주최: 기독교일보(Christianity Daily) 주관: 크리스천 다음세대 연구소(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함께 다음 세대 길러내기

교회학교 교사와 부모, ‘굿 파트너’ 될 수 있다면



부모, 다음 세대를 세우는
파트너

필 벨 | 정성목 역 | 디모데 |
268쪽 | 17,000원

이 책은 다음 세대 사역자가
부모와의 협력에 더
집중해야 할 필요성에
관해 말한다. 또 부모와의
협력을 위한 철학과 전략을
교회 전체 삶에 적용할
실천적인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이 방법은 교회 규모나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사역 환경에 상관없이
적용해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방법을 따르면
각 교회의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더욱 효과적으로 다음 세대
사역을 해나갈 수 있다

디모데 출판사는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아이들을 복음으로 길러낼
것인지, 성경적 기반 위에 실질적
원리를 제공하는 적실하고 유익한
책을 많이 출판하는 것 같다.

이번에 출간된 필 벨 목사(Phil
Bell)의 책 또한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것이다. 대다수의 책이 교회
학교 학생을 어떻게 훈련하고 가
르칠 것인지를 다룬다면, 이 책 <
부모, 다음 세대를 세우는 파트너:
다음 세대를 위한 효과적인 부모
수업>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교회
학교 부모를 어떻게 파트너로 만
들어 다음 세대를 효과적으로 양
육할 수 있을지를 다룬다.

20년 이상 다음 세대를 양육하
는 사역 현장에서 의미 있는 목소
리를 힘 있게 내온 필 벨 목사는
전국적으로 쓰임 받는 강사이자
블로거, 칼럼니스트다. 2021년 쓴
《The Family Ministry Playbook
for Partnering With Parents》이
이번에 번역된 책이고, 2015년
이미 《Team Up!: The Family
Ministry Playbook for Partner-
ing With Parents》라는 책을 낸
적이 있다(이 책이 절판된 것을 볼
때, 아마 이번에 번역된 책이 다른
출판사에서 재출간된 책이 아닐까
싶다). 보통 절판된 책을 재출간하
는 경우는 그 내용이 사라져 버리
기에는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판
단될 때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 책
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데 동
의한다. 가장 큰 이유는 어린이의
신앙을 길러내는 책임을 과도하게
교회학교에 부과하거나 반대로 부
모에게만 돌리지 않기 때문이다.

저자 필 벨은 오랜 교회학교 교
사 경험과 자녀가 생기고 나서 자
신이 부모로서 겪은 일들을 바탕
으로, 교회학교 교사와 부모가 어
떻게 파트너가 될 수 있을지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한다.

둘째로 제목 중 ‘플레이북(Play-
book)’이라는 대목에서 예상되는
전략이나 전술에 치중된 책이 아
니다. 몇 가지 구체적 제안을 하지
만, 대부분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교

회학교와 자녀 양육의 철학을 바
꿔준다는 점이 참 좋다.

저자 필 벨은 이렇게 말했다: “
부모들과 협력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협력자로 볼 때 다음
세대를 전도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가장 큰 성과를 거
둘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역하
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기존 사역에 부모들
과 협력하기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점목하면 된다. 그리고 이것은 당
신과 내게 매우 좋은 소식이다. 특
정한 배경에서 사역하는 법을 알
려주고 그대로 따라 하라고 말하
는 책이 너무 많다. 내 바램은 당신
이 이 책을 읽고 나서 부모와 효과
적으로 협력하고, 다음 세대를 그
리스도교로 인도하는 중에도 당신
사역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17쪽).”

저자가 언급한 대로, 많은 책들
이 교회 생태계 자체를 변화시켜
야 가능한 사역을 제시한다. 모두
흙수레를 시키라고 하거나, 주일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 프로
그램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하라고
도전한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성
공(?)을 가져다 준 사례가 반드시
다른 교회에도 그런 결과물을 가
져다주는 건 아니다. 또 성공은 단
지 숫자나 피드백에 달린 게 아니
라,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복음의 열
매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은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손에 달
려 있다. 그런 이유로 자기처럼 하
면 잘 된다고 말하는 책들은 거부
감이 생기는 게 사실이다.

저자는 부모가 왜 교회 행사에
덜 참여하거나 소통에 소극적인
지, 부모 입장에서 잘 설명한다. 그
리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알
려줄 수 있을지 도와준다. 저자는
또한 교사가 부모와 아름다운 동
역을 하려면, 먼저 교사가 좋은 부
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벨은 “부모와의 협력은 먼저 우
리 자신의 가정에 투자하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들
을 우리 자신의 가정 안에서 실천



▲과거 꿈미캠프에 참석한 아이들 모습(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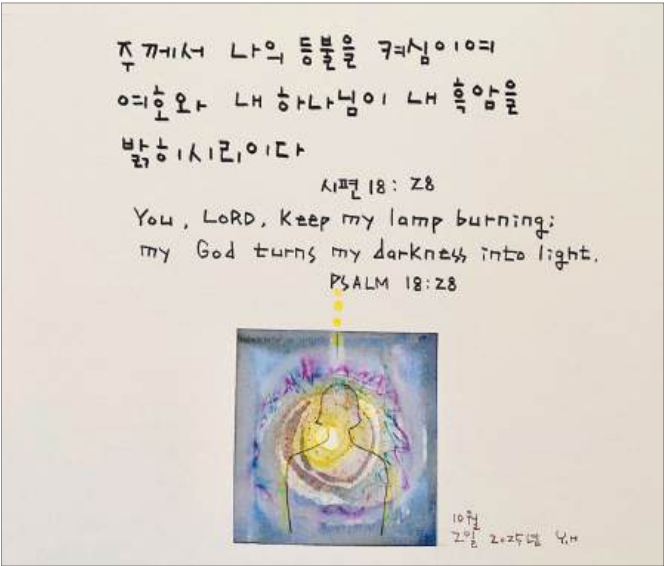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
리의 가르침이 우리 자신의 삶에
서 흘러나와야 한다(43쪽)”고 말
했다. ‘적용하기’에서는 각 장에
서 강조한 내용을 실천할 수 있도
록 도움을 주는 실천 과제를 제공
한다. 또 교사들이 모여서 결정한
내용을 부모에게 통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모가 건의하고 관찰하
고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채
워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
공할 것을 요구한다.

이 책 한 권으로 자녀 양육을 위
한 교사와 부모의 완벽한 전략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다면, 그것은 순간이 아니라 오랜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라
고 대답하고 싶다. 그가 오랜 세월
경험을 통해 이룩하고자 한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한 파트너십,
부모와 교사의 동역을, 이 책을 읽
는 모든 독자가 꿈꾸고 또 함께 만
들어가기를, 그래서 다음 세대가
가정과 교회의 일치된 신앙 교육
과 돌봄을 받아 하나님을 평생 경
외하며 약속된 복을 누리고 하나
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신실한 세
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출가山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대한예수교장로회 글로벌총회 서부노회 목사 안수공고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총회와 노회 그리고 각 지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중을 세워 주의 거룩한 사역에 헌신케 하시니,
이에 대한예수교장로회 글로벌 총회 서부노회가 다음과 같이 목사 안수식을 거행합니다.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고”(이사야 49:16)

▪일시 : 2025년 11월 2일(주일) 오후 4시
▪장소 : 예수생명팀교회 (조준석 목사 시무교회) (213)700-5546



임직자 : 이 지현 목사

약력

한국 장신대 성경통신대학 졸업 (1990)
UCA 학사 및 석사 (2018)
미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상담학 박사 과정 이수
아멘교회(고, 이재성 목사님)과 동역
대한예수교장로회 글로벌총회
강도사 고시 합격 서부노회 강도사 인허 및 목사 고시 합격
대한예수교장로회 글로벌총회 서부노회 목사 안수 위원회 안수



대한예수교장로회 글로벌총회 서부노회
총회장 김창영 목사 서부노회 노회장 정완기 목사

[서성록, 한 점의 그림] 목사이자 작가

이연호, 빈민들 섬긴 희생적 삶과 예술

서부이촌동의 빈민가 평생 지켜
병들고 애처로운 사회적 약자들
빈민들 돌보면서 미술 기본 익혀
닝마꾼들 한솔밥으로 목회 시작
이촌동 생활 낭만적 묘사하기도
고통받는 이들 공감, 가장 값져

이연호(1919~1999)라는 이름 앞에는 여러 수식어가 붙지만, 그에게 가장 어울리는 것은 ‘빈민을 위한 삶’이었다고 본다. 그의 생애는 가난하고 병들고 애처로운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들과 분리한다면 그의 예술이나 목회철학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연호는 일제강점기 상록회 사건으로 4년간 투옥, 사상범 교화기관 대화숙(大和塾)에서 억류생활, 춘천고보 퇴학과 배재중학교 편입, 감리교신학교 입학 등 부침이 심했다. 부친의 뜻을 거역하고 신학교에 입학함으로써 집에서 쫓겨나는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다.

해방을 맞이하였지만 기쁨도 잠시, 대다수 국민은 가난과 질병에 시달려야 했다. 그런 영향을 가장 피부로 느낀 사람들은 공동체 율타리의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 곧 빈민층이었다. 이연호는 그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들을 저버릴 수 없었다. 신학생 시절에는 길거리를 헤매는 거지 아이를 기숙사에 데려와, 자기 방에 재우고 재학생들에게 하루 한 끼씩 제공되는 죽을 나누어 주기도 했다.

그는 서울 아현동 호반재에서 3년간 결인과 불구자들을 섬기다 서울의 큰 홍수로 대규모 빈민 지역이 된 한강다리 옆 서부이촌동으로 이주한다. 평소에는 동네 아이들을 한강 모래밭에 모아 예배를 드리다가, 비가 오면 자신의 방을 예배처로 개방하였다. 서부이촌동의 ‘바라크(임시로 지은 작은 집)’는 얼마

전 있었던 홍수로 침수되어 벽이 뜯겨나갔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지붕 위 천막조각들이 바람에 휘날리는 곳이었다. 전쟁으로 피난을 다녀온 것과 미국 유학 기간을 제외하고 이연호는 이곳을 지켰다.

1950년대 서부이촌동은 우범자들의 집단 거주지였다. 결인, 술주정꾼, 도박꾼, 병어리, 장님, 부랑아, 병자 등, 그들은 툭하면 서로 고향을 지르며 싸웠다. 환경이 오염되어 있었고,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그런 지역을 가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의료봉사를 왔다가 이연호를 만나 양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젊은 여의사 정응득은 빈민의원을 개원해 무료진료 활동을 펼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 정응득 여사는 자녀를 돌보며 병자들을 치료한, 이연호의 든든한 동역자였다.

이연호는 쓰레기를 줍는 닝마꾼들과 함께 한솔밥을 먹으며 목회를 시작하였다. 이촌동에서 함께 지내던 여인이 폐병으로 죽었고, 돌보던 고아는 미군부대에서 사고를 당해 다리를 잃어버리는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잇달았는데, 그런 와중에도 그들을 위한 도움을 멈추지 않았다. 값싼 동정은 그들을 하대하는 결과를 낳으므로 먼저 ‘인격적 교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지니고 그들을 대했다(이연호, “외국의 빈민사업과 한국의 빈민사업”, 『새가정』, 1961. 2월호, p.29).

그에 관한 소식이 ‘타임’지를 타고 세계 각국에 알려졌고, 구호물품과 성금이 답지했다. ‘타임’지 발행인 제임스 린넨(James, A. Linen)은 국내에 파견되었던 유명한 사진작가 칼 마이던스(Carl Mydans)의 말을 인용하여 “그(이연호)는 미국에서 받은 선물에 감격하며 그 기금으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병들었거나 가난에 시달리기 때문에 시급



▲이연호, 도시공원이 된 언덕, 종이위에 수채, 1952.

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 그는 ‘병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교회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낀다고 말한다.” (Time, 1948. 5. 24, 그에 관한 동정은 1948. 2. 16, 1948. 5. 24, 1950. 11. 27, 1950. 12. 11, 1953. 3. 23 등 ‘타임’지에 다섯 차례에 걸쳐 게재됐다.)

이연호 목사는 이촌동 생활이 하루하루 고역스러웠지만, 그것을 꼭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때 생활을 다소 낭만적으로 묘사한 대목도 찾아볼 수 있다.

“내 집은 하늘에 가깝다고 외쳐대곤 했다. 낮에는 밀레의 〈농부〉그림에서도 찾을 수 없는 떨어진 옷차림을 한 절호의 모델들이 〈굴탄밭〉에서 불을 피워가며 일을 한다. 석양이 그들의 등을 비출 때 더욱 좋다. 때때로 불후의 명작을 보는 듯한 느낌에 도취될 때가 있다(1956).”

그는 빈민을 돌보면서도 틈날 때마다 미술의 기본을 익혔다. 미국 로렌스 대학에서 유학할 때 토마스 디트리히(T. Dietrich) 교수에게 미술지도를 받았고 프린스턴대학에서 목회심리학을 전공할 때 코치 박사(Dr. Korch)로부터 기독교미술 과목도 수강한 적이 있다.

1955년 그의 개인전이 동방화랑에서 열렸을 때, 시인 구상은 빈민들의 삶을 주제로 한 그의 작품을 보고 “심각한 충격과 경탄”을 느꼈다고 운을 댄 다음 “인류나 동포나 형제의 불행을 자신의 혈육의 불행으로 각성하고 통고(痛苦)하고 또 헌신하고 순사(殉死)하려는 자세 속에서만이 이를 조명할 수 있다”고 이연호의 실천적인 삶에서 비롯된 작품세계를 높이 샀다(구상, “작가와 현실과 소재, 그 통고의 자세를 위하여”, 경향신문, 1955. 10. 21).

〈도시공원이 된 언덕〉(1952)은 이연호의 초기 작품 성격을 엿볼 수 있다. 아마도 이촌동 풍경을 모티브로 한 것 같은데, 화면에는

여러 채의 집이 들어서 있고 집 앞이나 길 사이로 사람들이 나와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집은 지금과 같이 콘크리트나 벽돌로 지은 것이 아니라 판자를 지어올린 임시가옥 형태를 띠고 있고 지붕에는 천막과 방수 종이, 그리고 널빤지로 간신히 비바람을 막을 정도의 빈민 주택이 들어차 있다.

이런 곳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은 반바지 차림의 인물들이다. 등장인물들은 집안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바깥을 내다보거나 동네 공터에서 강아지 먹이를 챙겨주거나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도시공원이 된 언덕〉은 전쟁의 참화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웃들의 모습을 담았다.

소묘 〈왕의 손님들〉(1961)에서는 시대의 암울한 풍상을 엿볼 수 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시대의 불행에 무감각해진 사람들의 망각을 환기시키려 했을까. 작가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조명한다.

다리를 잃고 거리로 나온 사람은 고개를 떨구고 있으며 어깨에 지게를 인 일꾼, 구두닦이 소년과 그 뒤를 따르는 강아지, 우산을 옆구리에 낀 중년의 남성, 바닥의 장애인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작가는 펜으로 아주 세세하게 인물들의 턱수염, 이마의 주름살, 심지어 항겹으로 기운 바느질 흔적까지 재현하고 있다. 빈민을 주제로 삼은 작품으로,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손님임을 알려준다.

그의 삶은 시중 굶주리고 병든 이웃을 향한 애린 사상과 희생적 실천에 맞추어져 있었다. 시인 구상은 그의 작품에 대해 “피 흐르는 현실에서 작가의 고통 없이는 이 비참을 헤아릴 수 없다”고 했다. 이연호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살며 그들의 슬픔에 공감하는 일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하다. 거인의 삶은 화려하지도, 거창하지도 않았다.

서성록 명예교수(안동대 미술학과)



▲이연호, 왕의 손님들, 종이 위에 펜, 1961.



정의진흥협회

법률클리닉&리소스페어

▶ 일시: 11월 1일 <토> 오후 1시~5시

▶ 장소: 미주평안교회 MIJOO PEACH CHURCH
170 Bimini Pl, LA, CA 90004
별문&3가 (VONS 뒷편)

1시 사기 피해를 막으세요!

의료, 소비자, 부동산 관련 사기 예방법 및 대처법 알아보기
Los Angeles District 검사
Natalie Adomian, Steve Wang, June Miyagishima

3시 민사 소송 기초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신가요?
법정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아보기
APABA 변호사: Elvis Tran

2시 15분 세입자 권리 알아보기

보증금 반환, 거주 환경 기준, 임대인 괴롭힘, 퇴거 통보 등
AJSOCAL 변호사: 안민수

4시 가정법

당신과 가족을 지키는 법,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 이혼, 양육권 등 다양한 법률 안내
AJSOCAL 변호사: Lucia Kim

무료 커뮤니티 이벤트



법률 클리닉

시민권, 가족법, 주택, 건강 서비스, 유언장 등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와 1:1 무료 법률 상담! 위임장 등 법률 문서 작성도 1대1로 도와드립니다.



리소스 페어

공공기관과 커뮤니티단체들이 준비한 유용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각종 서비스 연결은 물론 Calfresh, MediCal 등 복지 프로그램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워크샵

한국어로 진행

법적 권리에 대해 배우고 법률 전문가들과 직접 상담하세요. Q&A 세션에서 궁금한 점을 직접 물어볼 수 있습니다. 주제: 민사소송의 기본, 주거권, 가정법, 사기 및 스캠 예방

1:1 법률 상담은 사전예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민권

가정법 노인 학대&가정폭력

주거관련

노동 및 고용

건강 지원

유언 및 상속 계획

민사 소송

아시안 차별 방지 | 주거 보호 이민 및 시민권 | 가정법·가정폭력 | 건강 지원

SCAN ME



사전 예약 / 문의

(800)867-3640

한국어 (Korean)

e-mail. hp@ajsocal.org

상담을 예약하려면 위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시거나 QR코드를 스캔하여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공동 주최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SOUTHERN CALIFORNIA
남가주 아시안 정의 진흥회



로스앤젤레스한인회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볼 수 있게-
당신의 소중한 눈을 건강하게 지켜드립니다!



가정의 달 특선

KISEIDO
EYE NOON EYE

믿음의 이름, 귀생당에서 만든 이시대 최고의 눈 건강 영양제!

좁아진 시야, 흐려진 시야로 고생하는 당신을 위한 최고의 눈 영양제!
[귀생당 아이 눈 아이]는 슈퍼푸드라고 불리우는 청정 열매인 마퀴베리의 안토시아닌과 델피니딘, 루테인, 지아잔틴 성분을
함께 구성하여 현대인의 눈 건강의 최적화와 눈 건강에 더욱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롭게 나온 눈 영양제입니다.



망막색소
재활성화



시력기능
향상



야간시력
개선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예방

하루에 2캡슐! 아이 눈 아이로 더 밝은 세상을 만나세요!

아이 눈 아이의 효능 효과

- | | | |
|---|---------------------------|---------------|
| ● 눈 기능 활성화, 눈 건강유지 및 보호 | ● 활성산소 완화 | ● 장내 효소 증가 |
| ● 장시간 컴퓨터, 스마트 폰, TV, 등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눈의 피로 개선 | ● 혈류 개선, 미세혈관 순환증가 | ● 소화기능 개선 |
| ● 백내장, 녹내장, 근시 및
AMD(황반변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 ● 심혈관, 뇌혈관 순환 도움 | ● 빈혈, 간 기능 개선 |
| | ● 알츠하이머, 치매, 집중력, 인지능력 향상 | ● 면역체계 향상 |

주요성분 안토시아닌,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델피니딘, 프로안토시아닌, 피페린, 빌베리



213.384.3333 www.kiseidousa.com

These statements have not evaluated by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